

# 메이저급 자전거 대회 무주서 열려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전거대회’ · ‘무주 그라운드 · 미디어폰도 대회’ 개최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전거대회와 무주 그라운드·미디어폰도 대회가 지난 11일과 12일 청정 무주군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국내 메이저급 대회가 무주지역에서 잇따라 개최됨으로써 무주가 최적의 자전거 도시라는 평가를 동호인들로부터 받기에 충분했다.

그라운드·미디어폰도 대회는 경주 방식이 아닌 비경쟁 코스 원주 방식으로 치러진다.

국내 자전거 마니아들이 총 출동하는 미디어폰도 대회는 무주읍 예체문화관 주차장(오전 8시)에서 출발해 부남면사무소~안성면 농공단지~적상산 사산교차로~국민체육센터 앞에 도착하는(오후 4시) 70.7km 구간이다.

그라운드 대회는 적상면 하조사거리(오전 10시 출발)~설천면 대평마을~무풍산자유통센터~무주구천동~국민

체육센터 앞(오후 4시 도착)을 달리는 125.7km 구간이다.

(사)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사)전북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2022 무주 그라운드·미디어폰도 대회는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2,200여명이 참가했다.

군은 앞서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지난달부터 대회요강 공지와 선수 모집, 사전 코스 답사, 교통안내요원 모집, 교통 유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펼치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등을 운영·유도 요원으로 현장에 투입,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전국 자전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총 출동하는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전거대회도 성공리에 마쳤다.

동호회 300여명이 참석한 이 대회는 오전 11시 예체문화관 주차장을 출발해 오후 1시 무주읍 대치리 강변도로에 도착하는 22.8km코스다. 대한자전거연맹과 대한체육회, 전국시도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서종열 팀장은 “스포츠·관광이 어우러진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물론 동호인들의 연중 무주 방문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무주 그라운드 대회를 시작으로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3년 연속) 대회와 문체부장관기, 전북지사배(2년 연속)과 함께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자전거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치매안심센터는 한발 더 가까운 우리 동네 인지선별검사를 운영한다.

## 치매 위험군 조기 발견 최선

### 무주군치매안심센터, 우리 동네 치매 인지선별검사소 운영

무주군치매안심센터는 한발 더 가까운 우리 동네 인지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 운영인력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및 보건지소 간호 인력이 투입된다.

9일 무풍보건지소에서 첫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5일까지 시범 운영하며,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치매선별검사는 개인당 약 15~20분 가량 소요된다. 선별검사 시행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는 경우 치매 진단을 위해 신경인지검사와 상담진료, 관

내 의원 등에 연계하는 후속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치매환자 등록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안심센터까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수혜 사각지대가 해소됨은 물론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재검을 향상이 기대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인지선별검사소에서 인지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위험 군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중증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인지선별 검사소 운영과 치매 선별·진단 검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무주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063-820-8601)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제29회 부남면민 화합한마당 잔치 열려

### 디딜방아액막이놀이 시연 · 기념식 · 면민노래자랑 등 진행

무주군 제29회 부남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잔치가 지난 11일 부남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부남면(면장 이승하)이 주최하고 부남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면민 등 약 9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전라북도 무형문화재)와 난타공연 등을 시작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투호, 고리걸기, 제기차기 등의 민속경기, 면민노래자랑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이일구 씨(60세, 고창마을)와 심미순 씨(59세, 울소마을),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 표창을 수상했으며 강명섭 씨(85세, 대소마을)가 면민의 장 문화체육장을, 박연순 씨(73세, 하평마을)와 강맹이 씨(57세, 하골안마을)가 군의회의장 표창을, 그리고 한정순 씨(67세, 상평당마을)와 김종현 씨(67세, 도소마을)가 면장 표창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때문에 면민의 날 행사로는 3년 만”이라며 “그간 코로나여 용담땀방류 피해문제까지 우리 면민 여러분이 겪으며 견뎌야했던 고충이 너무 컸

는데 잘 견디고 함께 하게 돼 정말 기쁘고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강과 래프팅, 버섯길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의 고장 부남면, 지역의 전통과 애환을 담고 있는 디딜방아액막이놀이를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주신 면민 여러분이 우리 무주의 자존심이자 자긍심”이라면서 “부남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 부남면 지역발전협의회 김윤섭 회장은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간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우리 부남이 더욱 강건해질 것을 믿는다”며 “오늘 화합한마당 잔치가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동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본격 착공

진안군이 ‘동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본격 착공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 소재지의 중심거점기능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과 정주 여건을 마련으로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3년 말까지 동향면 소재지인

대량리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투입해 문화·복지센터, 체력공원 수변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위원회 회의,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최근 공사 도급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에 들

어가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의 주요 핵심시설인 동향면 ‘다음센터’는 연면적 610㎡, 지상2층 규모로 구 진안농협 동향지점 부지에 신축하게 된다.

센터는 △1층 북카페, 공유레라방,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2층 작은도서관, 소강당이 설치돼 지역주민들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게 될 예정이다. 센터 주변으로는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 주민공동체의 만남과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홍삼축제추진위, 축제 성공 위한 벤치마킹 나서

문화관광체육부 지정된 진안군 대표 축제인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0일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명석, 우덕희)는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벤치마킹에는 추진위원회 및 관계자 등 23명이 나서 축제에 한창인 한산모시문화제 현장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3년 만에 현장 축제로 개최하는 진안홍삼축제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타 시군의 우수 축제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축제에 반영하기 위해 집중하며 눈을 빛냈다.

한산 장남을 시작으로 먹거리·체험마당, 역사문화마당, 모시학교마당 등 축제장 모든 곳을 둘러보았으며 행사장 및 부스 공간 구성, 각종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진행 상황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직접 참여하며 접목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올해 10월 7일에서 10일까지 마 이산 북부에서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하며 성공적인 홍삼축제 개최를 다짐했다.

박명석 위원장은 “한산 모시문화제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문화관광축제라는 면에서 우리 진안홍삼축제와 유사한 점이 많아 좋은 시간이 됐다”며 “2022 진안홍삼축제가 3년 만에 현장에서 관람객들을 만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멋진 축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산모시문화제와 비교하여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출장소 운영을 실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거주 지역 내에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있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경적)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200cc 이하)이며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이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